

우리 나라에서 몽골어연구력사에 대한 리해

안 종 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언어학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언어학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전집》 제32권 360페이지)

중세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나라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몽골어연구는 력사에 있어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또 그 연구성과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몽골어연구는 한어연구에 비교할수는 없지만 오랜 연구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중요성에 있어서도 《한어, 몽골어, 녀진어, 왜어》 등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한어다음의 순서를 차지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한어, 청어, 왜어와 함께 4학의 한 기둥을 이루고 조선봉건 왕조후반기까지 국가적인 관심속에서 연구와 보급이 진행되였고 그 과정에 수많은 몽골어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연구성과들이 집대성된 몽골어학관계의 도서들도 적지 않게 편찬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몽골어연구력사는 우선 몽골어연구가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였는가 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몽골어에 대한 연구는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운 고려시기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되였다.

원나라가 세워진 13세기 고려와 몽골과의 대외관계는 몽골침략군의 거듭되는 침입과 그를 반대하는 고려인민들의 영웅적투쟁, 몽골침략군의 재침책동, 고려의 반몽외교활동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고려와 몽골사이에 이러한 복잡다단한 외교관계가 존재하였던것만큼 이 시기 몽골어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그것은 《고려사》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고려사》(권31 충렬왕 을미 21년 춘정월 임신)의 기록에 의하면 1295(충렬왕 21)년에 원나라에서 몽골인교수를 고려에 파견한 일이 있으며 이 시기 고려에도 이름난 몽골어전문가들이 수많이 활동하고있었다.

《고려사》에는 또한 《역어》에 관한 기록들도 여러곳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이 시기 《역어》와 관련한 기록들에 나오는 역관(통역원)들은 대부분이 몽골어역관들이였다.

한편 《고려사절요》(권15 고종 기묘 6년)의 기록에 의하면 1220(고종 7)년경에 몽골군대의 장교였던 합진 등이 동진인 40여명을 의주에 떨구어두고 고려말을 배우도록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시기에 벌써 고려와 몽골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있었음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의 몽골어연구력사는 또한 몽골어연구에 종사한 학자들에 대하여 해명하는 문제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15세기이전 몽골어에 정통하여 나라의 대외관계와 언어학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의 이름이 통사의 신본으로 소개되고있다.

조인규 효몽한어 렬전 권18

한악 초해몽한어 렬전 권20

익선 역해한몽어 세가 권36

최안도 통몽한어 렬전 권37

우의 소개에서 보는바와 같이 몽골어통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몽골어뿐만아니라 한어에도 정통한 사람들이였다.

고려시기 몽골어통사로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이밖에도 강준재, 강운소, 정자전, 원경, 류청신, 배빈, 학선, 우정 등을 찾아볼수 있으며 조이와 같이 여러 나라 언어를 리

해했다는것으로 보아 몽골어통사로 볼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밖에 《동문선》에도 권현복, 윤지표와 같이 몽골어역학자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기 몽골어통사와 관련한 자료가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학문적성과에 대하여 소개한것은 없고 당시 고려봉건국가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논 그들의 역할만이 일정하게 강조되고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당시 고려봉건국가가 몽골어에 대한 학습을 얼마나 중시하고 장려하였는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초기에 등장하는 몽학자로서는 주언, 송희명, 조희고와 같은 몽어 혼도관들과 윤자운을 들수 있다.

이들가운데서 윤자운은 세종때의 강이관 출신으로서 1477(성종 8)년 9월 무진일에 몽골어, 한어를 우리 말로 번역한 《몽어운요》 한권을 만들어 바치면서 인쇄하여 널리 나누어줄것을 제의한 사람이다.

몽학은 1737(영조 13)년 5월 신축일에 좌의정 김재로가 제의하여 몽어충민청을 설치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786(정조 10)년 4월 을미일에 사역원 도제주 리복원이 몽어역판도 드물고 교재도 희귀하니 사신이 책임지고 몽학교재를 구해오도록 하자고 제의하자 당시 왕이었던 정조도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관심에 발맞추어 몽학자들도 조선봉건왕조후반기까지 활약하면서 여러가지 공적을 남기었는데 그 공적은 역시 교재와 사전편찬으로 나타났다.

교재로는 1737(영조 13)년이후 몽학관 리희대와 청학관 현문항이 베이징에서 사는 몽골인들에게 질문하여 책을 만들었던것을 1741(영조 17)년에 몽학관 리최대 등이 간행한 《몽어로결대》 8권이 있고 1790(정조 14)년에 몽학훈장 방효언이 기본이 되어 간

행한 《첩해몽어》 4권이 있다. 이 책은 이보다 50여년 앞선 1737(영조 13)년에 몽학관 리세걸 등이 간행한것을 이때에 수정간행한것이다. 리희대는 몽학충민 통정대부에 이른 사람이며 리최대는 교정 겸 서사관으로서 전 혼도였고 이밖에 박도성, 정진형 등 9명이 참가하였다.

방효언은 1771(영조 47)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몽학 별체아 혼도에 이르렀는데 그가 기본이 되어 간행한 《첩해몽어》의 간행에는 박상수 등 8명이 관여하였다.

리세걸은 몽학자로서 몽학충민 첨정(종4품)에 이른 사람이다.

사전으로는 1768(영조 44)년 무자에 몽어훈장 리억성이 간행한 《몽어류해》(2권)가 있고 1790(정조 14)년에 방효언이 간행한 《몽어류해보편》 1권이 있다. 이 책의 편찬에는 방효언외에 리익 등 12명이 참가하였다.

리억성은 1735(영조 11)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한학 원체아 가선대부 증추부 동지사에 이르렀으며 1768(영조 44)년에는 《몽어로결대》를 수정하여 간행한 일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몽골어연구력사는 또한 몽골어에 대한 연구성과가 집대성되어있는 도서들에 대하여 밝히는 문제이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몽골어에 대한 연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국가적인 관심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사역원에 《몽학》이 정식 설치(1394년 11월)된 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역원은 설치된 때로부터 그것이 없어진 19세기 후반기까지 약 500년동안 한어, 녀진어(만주어), 몽골어, 일본어에 대한 연구 및 교육사업을 《4학》이라는 이름밑에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 외교에 필요한 통역관양성사업이 정규화되고 외국어학관계의 도서들도 수많이 편찬간행되었다.

오늘까지 전해오는 몽학관계의 도서들에 는 회화학습용교재인 《몽어로결대》와 《첩해

몽어》 그리고 한어, 조선어, 몽골어대역사전인 《몽어류해》 등이 있다. 이 도서들에 대하여 《첩해몽어》의 서문에서 《몽학3서 중간서》라고 하고있으므로 그것을 인용하여 그대로 《몽학3서》라고 하기도 한다.

《몽어로결대》는 그 량과 질에 있어서 대표적인 몽골어교재라고 할수 있다. 이 책은 고려때부터 사용하여오던 한어학습교재인 《로결대》를 몽골어로 번역한 다음 그것을 다시 언문으로 번역한 회화학습용교재이다.

원래 조선봉건왕조초기부터 사용되었던 몽골어교재 《로결대》가 임진조국전쟁시기 잃어지자 1684(숙종 12)년부터는 《신병로결대》를 몽학 과거시험용교재로 사용하였는데 실지 《몽어로결대》의 간행은 1737(영조 13)년부터 시작되었었다. 몽학관 리희대와 청학관 현문항이 베이징에서 벼슬하는 몽골인들에게 질문하여 책을 완성하였으나 그 분량이 너무 많아 간행하지 못하던것을 리최대 등이 겨울부터 여름까지 목판으로 간행하였던것이다.

《몽어로결대》는 우리 나라 말장사군이 베이징까지 갔다오는 동안에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필요한 대화들을 수록한 책으로서 일상회화로 구성되었는데 이 책에 사용된 어휘수는 1 400여개에 달한다.

같은 회화학습용교재인 《첩해몽어》는 1737(영조 13)년에 새로 번역되어 리세결 등이 간행한것을 1790(정조 14)년에 방효언이 다른 몽골어학습도서와 함께 수정간행하였는데 1, 2권은 각각 40페이지이고 3, 4권은 각각 34페이지로서 권4의 끝에 리익이 쓴 《몽학3서 중간서》가 붙어있다.

《첩해몽어》가 매우 고전적이라면 《몽어로결대》는 이와는 반대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첩해몽어》를 자음뿐아니라 어투까지

도 수정하였기때문이다.

한어, 조선어, 몽골어대역사전인 《몽어류해》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편찬되었는지 알수 없다.

몽골어의 학습과 몽어역관의 과거시험용으로 쓰인 이 책은 1768(영조 44)년에 리억성에 의하여 개정본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전하고있는것은 1790(정조 14)년에 방효언이 《몽어로결대》, 《첩해몽어》와 함께 수정하여 간행한것이다.

현재 규장각본이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그 필사본도 전해지고있다.

몽골어학관계의 도서에는 《몽어류해보편》도 있는데 이 책은 《몽어류해》를 보충하여 찍어낸 책으로서 1권으로 되어있다.

중세에 편찬된 몽골어학관계의 도서들은 이밖에도 《왕가한》, 《수성사감》, 《어사잡》, 《고난가든》, 《황도대훈》, 《공부자》, 《첩월진》, 《토고안》, 《백안파두》, 《대루원기》, 《정관정요》, 《속팔실》, 《장기》, 《하적후라》, 《거리라》 등이 《경국대전》에 소개되어있는데 이 도서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동아시아어학자들이 남긴 몽학관계의 도서들은 오늘날 몽골어에 대한 력사연구에서뿐아니라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어의 발전력사 및 사전편찬력사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몽골어연구력사는 매우 오래며 수많은 몽골어학자들에 의하여 귀중한 몽골어관계의 도서들이 편찬되어 전해지고있다.

앞으로 몽골어연구력사에 대한 탐구를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하여 조선어학사를 더욱 보충풍부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